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낭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낭비로 볼 수 있는 도락에 대해 제시한다. 도락은 인간의 소비하려는 경향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기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낭비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는 길브레스가 연구와 조정들을 통해 노동 시간의 낭비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서 낭비가 인위적으로 줄여야 할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이 기억을 위해 선택적으로 망각해야하는 정신 작용에 대해 제시하는데, 이를 원근 단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제시한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원근 단축은 자연스러운 낭비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 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본래 기억을 추구하는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망각을 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능적으로 낭비를 추구하지만, 원근 단축이라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낭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제시문 (다)의 원근 단축은 더 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인간은 선택적 기억을 위해 원근 단축이라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종종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즉, 원근 단축이라는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을 시에는 원근 단축이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문제2

제시문 (나)는 도움을 통해 노동자들의 작업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을 제시하는데, 이는 도움을 통해 미숙했던 작업도 능숙하게 해내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시문 (라)의 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공개시간은 조정이나 도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최초 공개의 희미한 정도는 난이도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 인지된 사진의 비율이 공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는 49.6%, 44.5%, 33.7% 순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희미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는 59.8%, 44.7%, 23.3% 순으로 전자에 비해 평균간의 차이가 크다. 또, 희미한 정도가 상인 경우에는 122초와 35초간에 인지된 사진의 비율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이구간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도움의 여부보다는 난이도 자체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움은 무의미함을 통해 도움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제일 먼저 하게되는 것은 서류심사인데, 서류심사는 특성상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의 사례처럼 사람들은 도움을 통해 유연하게 그 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서류심사는 도움이 주어지지 않아 그 가능성까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류심사로는 제대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느슨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면접심사에서 채용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

그런데, 느슨한 서류심사를 하고나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면접심사를 치러야한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면, 변별있는 문제를 통해 소수를 가려내야한다. 제시문 (라)에 따르면 변별에는 어려운 문제가 좋은데, 그 이유는 어려운 난이도에서 사람들의 작업 성취 비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들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도움의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들이므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회사가 뽑고자하는 조건에 충족하므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과정에 있어서 느슨한 서류심사와 어려운 면접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